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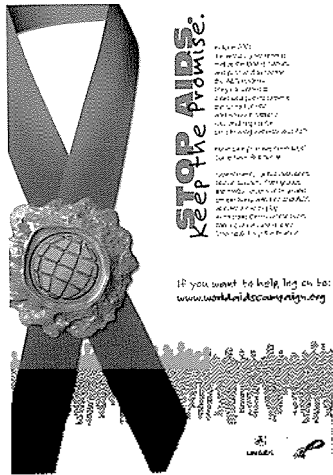


World AIDS Day

‘세계에이즈의 날’은 축제의 날?

세계에이즈의 날은 1988년 제정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왔으며 2006년 12월 1일에도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대다적인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펼쳐진 우리나라의 세계 여러나라의 행사 내용과 특징, 국민들의 반응 등을 비교해보며 아직은 그들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실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김신혜 *작가 영화감독



▲ 2005년 에이즈의 날 포스터



▲ 마닐라 행사모습



▲ 스위스 행사모습

매년 12월 1일은 전 세계가 일제히 에이즈 퇴치와 예방 및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타파를 상기하며 각국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벌이는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을 비롯한 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사도 관례로 치러지던 기념식 정도에서 각종 문화 행사와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두 캠페인, 글로벌 기업과 시민단체가 연계한 축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모하며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촉구하는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각국의 다양한 면모들에 비하면 아직은 에이즈 문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냉랭하고 수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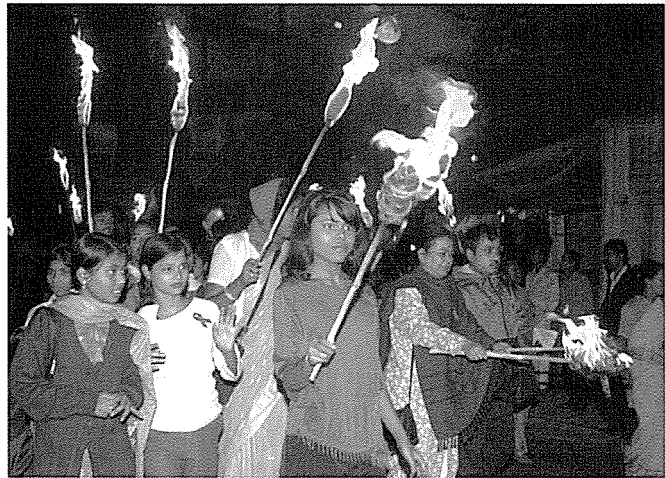
세계적인 추세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

캐나다, 호주, 유럽의 각국에서는 가두행진과 자유로운 퍼포먼스, 국가 저명인사와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자선 바자회나 콘서트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대형 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병인 에이즈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비정기적이지만 토론토, 시드니 등 대도시 중심지에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캠페인이 온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환갑을 기념해 열린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한 자선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아프리카에이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데 쓰여 지기도 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유명 화장품 업체와 유명 보석 가공 업체가 손잡고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모두 에이즈 감염인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정기적인 기부하기도 한다. 에이즈 관련한 기부나 협력은 기업 이미지를 호린다고 생각해 기부나 협력을 꺼리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레드리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이즈 날을 기념해 영화제, 기념식, 대형 조형물 설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화제가 되었다. 문제는 국민의 참여와 에이즈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인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코드를 찾는 데는 미치지



▲ 칠레 행사모습



▲ 인도 행사모습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에이즈는 걸릴만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냉소적인 시각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는 듯하다.

세계에이즈의 날은 세계가 하나로 나아가는 날

아프리카에는 전 국민의 70%가 에이즈 감염인인 나라도 있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으로 전 국민의 평균 수명이 35세 이하인 나라도 있다. 전 세계 청소년 감염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에이즈는 단순히 현재로는 치료 방법이 없는 무서운 질병으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 상실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25세 미만의 젊은 인구층을 더욱 얇게 만들어 전 세계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좀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 에이즈문제에 대한 고찰과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부각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계에이즈의 날은 이런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전 세계 인류가 하나로 생각과 의지를 모으는 연결 끈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 관심과 동참이 절실

에이즈 감염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여전히 에이즈는 완치가 어려운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인데 왜 세계에이즈의 날 해외 각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춤과 노래가 있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을 열며 술렁거리는 걸까? 초상집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과 퇴치에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가 숨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 뒤 다가오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앞둔 지금, 우리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세계에이즈의 날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에이즈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각종 이벤트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태도는 버려야 함을, 우리 역시 적극 동참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함을 단 몇 명의 국민이라도 더 절실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